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Since 1908·5·1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의로우신 하나님, 여름 곡식이 익어가는 이 아름다운 소만(小滿) 절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끔은 삶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짐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온 사람처럼 우리는 지쳤고, 감성은 메말랐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빈들의 마른풀처럼 시들은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시든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신명나게 살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사랑의 불을 지르며 살게 해주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꿈에 지펴 '지금'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롬8:33-34 …… 인도자

♠ 교 독 문 …… 10. 시편 27편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Ⅰ. 김민주 선생 Ⅱ.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169.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 다함께

성경봉독 …… Ⅰ. 골4:16-19 …… 인도자
Ⅱ. 민11:24-30 김근종 권사

찬 양 …… 찬양대

말 씀 …… **Ⅰ. 머리되신 그리스도** …… 장영숙 전도사
Ⅱ. 비상과 일상 김기석 목 사

거둠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174. 성령의 은사를 …… 다함께

헌금봉헌 ……<찬양: 5남선교회/8여선교회>…… 다함께

♠ 봉 헌 송 …… 69. 나 가진 모든 것(1,2)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주님만을 길로 삼으십시오. 성령의 불꽃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뻐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 이제는 망설임 없이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만, 메마른 광야에도 꽃을 피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 다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의 맥잡기/김기석 목사	성서의 평화(27)/김기석 목사
기도 : 한선희 집사	기도 : 문인옥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임보람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조항미 집사

5월							
	영접위원	구성실	이인웅	오진훈	노순옥	문인옥	이건화
	헌금위원	윤석철	김정길	김용길	최숙화	강순배	문인옥

▣ 믿/음/으/로/읽/는/글/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채널을 아무리 돌려도 한 방송국만 잡히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물론 볼륨도 조절할 수 없다. 어떤 때는 소리가 겨우 들릴락 말락 하고, 어떤 때는 소리가 너무 커서 거의 고막이 터질 지경이다. 라디오를 끈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하다. 어떤 때는 나지막하게 들리다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려고 하면 갑자기 꽝꽝 울리기 시작한다. 누가 이런 라디오를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당신의 심장이 미쳐 버릴 것만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데도, 당신은 이를 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상적이고 인간적이라고까지 한다.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산란했던 수많은 시간을 생각해 보라. 당신의 마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거나 당신이 가진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혹은 당신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을 피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분노와 우울과 걱정으로 인한 고통을 당해 왔다. 사랑에 빠져서 거절이나 질투심을 느끼면 갑자기 당신의 마음은 온통 이 한 가지 일에 집중되면서, 인생이라는 연회가 불쾌하게 느껴질 것이다. 당신이 선거에 이기려고 분투하고 있을 때, 이 전쟁터의 소음 속에서 새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의 야망이 모든 다른 소리들을 묻어 버린다. 마찬가지로 중병에 걸린 것 같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집착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인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랑스러운 기관의 기능은 파괴되고 만다. 라디오를 고치고 싶다면, 라디오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야 한다. 마음을 교정하고 싶다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네 가지 진실에 대해서 진지하고 여유로운 생각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먼저 당신을 괴롭히는 집착과 당신이 매달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갈망하는 집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다음의 진실에 귀를 기울여 보라.

첫째, 당신은 집착과 행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둘을 다 가질 수는 없다. 당신이 집착을 선택하는 순간, 심장은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고, 즐겁고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능력은

파괴된다. 당신이 선택한 집착에 적용해서 이것이 얼마나 진실인지 보라.

둘째, 당신의 집착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사회와 문화가 당신에게 한 거짓말 혹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했던 거짓말로부터, 즉 이것이나 저것이 없으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짓말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그저 눈을 뜨고 이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보라. 당신이 열망하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확신했던 사물이나 사람 혹은 상황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선택을 하라. 집착을 원하는가 아니면 자유와 행복을 원하는가?

셋째, 당신이 완벽하게 살아 있는 삶을 원한다면, 인지력을 길러야 한다.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힘을 쏟아 부음으로써 당신을 당황하게 만드는 이런 사소한 일에 비하면 인생은 무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다. 그렇다. 집착은 사소하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넉넉하게 오래 살아서 하루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루는 수월하게 갈 것이다. 심지어는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 자신의 경험이 확인해 줄 것이다. 과거에는 당신을 괴롭혔으나 오늘날에는 간신히 기억해 낼 수 있는 그 많은 사소한 일들로 해서 당신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넷째, 그러므로 외부의 어떤 사물이나 사람도 당신을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을 알건 모르건,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오직 당신뿐이며, 주어진 상황에서 집착물에 집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당신이다.

이 진실들을 깊이 생각할 때, 당신은 마음이 그것들에 저항하거나 혹은 반대하고, 그것들을 직시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라디오에 대해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할 만큼, 아직 집착의 손아귀로부터 충분히 혼쭐나지는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에는 이러한 진실들에 저항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라. 마음을 개조하는 회개가 시작된 것이고, 드디어 고맙게도 어린아이처럼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상태,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이제 당신은 손을 뻗어서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앤소니 드 멜로, <<사랑에 이르는 길>>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떨림으로

이성선

삶 전체가 기도이게 하소서.
기도가 떨리는 삶의 전부이게 하소서.

별빛으로 몸을 씻습니다.
바람의 말씀으로 영혼을 씻습니다.

그것만으로 이젠 가슴 찬란하여
밤이면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시를 쓰고 살아갑니다.

아침 연잎에 구르는 물방울 소리
황홀히 빈 손으로 받고

빈 저녁 바다
그분 오시는 발소리에
문풍지처럼 가슴 떨립니다.

떨어지는 나뭇잎 두 손으로 받으며
이 큰 떨림으로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게 하소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중수 이순정 김용진 박효선 김정길 최숙화 고광송 이춘희 박병구 서원금 오자영 안정숙 이성운 임 영 정경례 임승동 백혜숙 임보람 권미숙 박애순

월정헌금:
김영순 김승현 김수진 박병구 박어진 박춘희 이기분 이갑재 이호원 전영자 문홍일

감사헌금:
김성한 조영순 차혜심 이봉배 권미숙 오정숙 김지혜 김일랑 이은옥 임주빈 최현옥 오광자 무명1

생일감사헌금: 김영순 박옥순 윤미경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윤석철 장혜숙 조윤경 문금석 김용길 최영혜 이인웅 윤여민 김준우 우순덕 이선림 이인섭 왕성환 강순배 (누계-67,86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차 혜 심	정 두 리	연합속회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배 부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이 소 순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원	
갈 릴 리	안 정 숙	박 애 순	조 병 주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김 순 복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홍 복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최 숙 화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김 금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이 형 숙	
가버나움	안 홍 숙	오 현 정	임 수 연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송 양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봉 배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성령강림절 :** 오늘은 성령강림절이고, 이제부터 오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는 교회야말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2. **임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5월 정기임원회가 있습니다.
3. **중고등부 :** 중고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오후 1시, 교육관). 중고등부실의 낡은 의자를 교체하고 싶은 저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4. **팀장모임 :** 오후 집회 후에 100주년 기념 사업 팀장 모임이 있습니다.
5. **웨슬리집회 :** 중구용산지방 선교부가 주관하는 집회가 27일 오후부터 30일 저녁까지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일신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일 저녁에 안내를 맡았습니다.
6. **두 바퀴로 그리는 녹색 교회 :** 서울연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해 자전거 타기 행사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일시: 6월 2일(토) 오후 1시부터
   장소: 광화문 감리회관 앞 희망 광장
7. **연합속회 :** 6월 1일(금)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예배인도 – 베들레헴 속　　식사준비 – 고린도 속
8. **봉사 :**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가 연합속회 후에 실시됩니다. 연약한 이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9. **신앙실천 :**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보십시오.

* 식당 봉사 : 시온 속　　*토요주방봉사(2일) : 윤정화 황선희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김지호(생일) 김철수(결혼기념일) 박병구(생일) 김정길 최숙화(결혼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